

꺾이지 않는 폭염 10일 더...지역민 지쳐간다

광주·전남 폭염 언제까지

8월 중순이 지나면서 폭염이 꺾이는 예년과 달리 '찜통' 더위가 10여일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례적으로 한반도에 머물고 있는 티베트 고기압의 확장세에 북태평양 고기압까지 중첩돼 열돔현상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구 낮 최고체감기온은 34.7도(실제기온은 34도), 서구 풍암동은 34.6도(33.8도)를 찍었다. 구례는 낮최고 체감기온이 36.1도(34.9도), 담양도 36도(34.3도)까지 치솟았다. 신안 흑산도와 해남도 낮 최고체감기온이 각 35.6도에 달하는 등 전남 대부분 지역이 34도를 웃돌았다.

그동안 광주·전남의 8월 폭염은 광복절을 기점으로 하향세로 돌아서는 패턴을 보였다.

광주지역 평년(1991~2020년) 8월 낮 최고기온은 상순 32.1도, 중순 31.1도, 하순 29.6도를 기록했다. 지난해 역시 상순 33.5도, 중순 32.5도, 하순 30.1도 등을 기록했다. 거의 1도가까이 떨어지는 양상을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 8월 상순에는 평균 34.1도를 기록했지만 중순인 현재까지(11~17일)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은 34도를 보여 0.1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정점을 찍은 상순 기온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저기온 역시 평년 8월 상순 24.2도, 중순 23.5도, 하순 21.9도로 서서히 떨어지지만 올해는 상순 25.9도, 중순 24.5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잠 못드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장기 폭염은 '역대급'으로 꼽히는 지난 2018년 기록에 근접하고 있다.

올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일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수는 이미 17.3일을 기록했다. 평년(7.4일)의 2배 이상이며, 1994년(26.3일), 2018년(26일), 2016년(18.6)에 이어 역대 4위 기록이다. 특히 강진군은 지난달 27일부터 22일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북태평양고기압 길게 확장되며 티베트고기압과 중첩 '열돔 현상' 33도 이상 17.3일, 평년의 2배 온열환자 353명에 사망자 3명 20일부터 비...무더위는 계속

열대야 역시 올해 22.9일로 평년(11.4일)을 크게 넘어섰고, 역대 1위인 2018년(25.7일) 기록과 불과 2.8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기상청은 한반도 상공 고도 약 12km 지역에 자리잡은 티베트고기압의 확장세가 꺾이지 않아 폭염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반도 상층 5~6km 지역에 북태평양고기압이 배치돼 고온 다습한 기후까지 겹쳐 열돔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기압의 세력이 워낙 강해 현재까지 생성된 태풍이 티베트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모두 일본 동쪽으로 진행되는 현상도 관측되고 있다.

올해는 8호 태풍까지 모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7~8월 동안 한반도에는 2021년 2개, 2022년 4개, 2023년 1개의 태풍이 영향을 미친 것과 다른 양상이다.

광주·전남에서 폭염 피해도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5월 20일~8월 17일) 광주·전남 온열환자수는 총 356명(광주 53명, 전남 303명)에 달한다. 사망자도 3명 발생했다.

전남 19개 시군 126호 농가에서 닭·돼지·오리 등 가축 총 16만 9896마리가 폐사했고, 18개 어가에서 낚치·우럭 등 29만 3000마리가 더위를 못이겨 폐사했다. 추정피해액은 30억 7700만원에 달한다.

기상청은 최근 폭염이 재난 수준으로 극심해져 '폭염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장마나 태풍 등에 대한 백서는 발간된 적이 있지만 폭염백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폭염백서에는 과거 폭염 기록과



한달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18일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에서 살수차가 도로에 물을 뿌리며 지면의 열기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폭염 발생 원인과 구조, 중장기 폭염 전망, 폭염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은 "19일 낮 최고기온은 32~35도까지 오르고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24~27도, 낮 최고기온은 30~34도에 분포하는 등 폭염과 열대야는 8월 중순 이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18일 예보했다.

오는 20일 남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에 5~40mm, 전남 남해안에 20~60mm 비가 내리기 시작해 22일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기온이 2~3도 가량 내려가겠으나 높아진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여전히 33도를 웃돌아 무더위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전공의 모집 연장했지만...지원자 '0명'

광주·전남 수련병원 '한숨'

광주·전남 수련병원이 전공의 모집을 연장했으나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광주·전남 수련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진행된 전공의 모집 현장에서 지원자는 0명이다.

결국 일반의 면허를 가진 광주·전남 전공의들이 상급병원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개원가 등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 수련병원은 상반기 전공의 채용 당시 선발하지 못한 총 72명(전남대병원 28명, 조선대병원 40명, 광주기독병원 4명)을 하반기에 모집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당초 하반기 응시모집 마감일인 지난달 31일 까지 지원자는 총 3명(전남대병원의 지원자 0명, 조선대병원 지원자 1명, 광주기독병원 2명)에 그쳤다.

광주기독병원은 마취과 전공의 지원자 2명 중 한 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모집 연장을 하지 않았지만,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당초 모집인원이었던 68명에 대한 모집을 연장했다.

지난 16일 마감기한까지 추가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조선대 병원은 당초 지원자 1명만을 대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상급병원 의대교수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일반의 취업 시장이 이미 지난년부터 과열양상"이라면서 "광주지역 사직 전공의까지 일반 개원병원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정부가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이들이 수련병원으로 돌아오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진료 전담 의사로 일반의 31명에 대한 채용 공고를 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민원 처리 대가 금품 요구 혐의...순천 기초의원 구속

건설사에 민원을 처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순천의 한 기초의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장두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A순천시의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의원은 지난 4월 순천시 한 건설업체에 민원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

기로 약속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A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의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30일 A 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서류와 컴퓨터·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온열질환 쓰러졌는데 사진 찍어 부모에게 데리고 가라니"

장성 에어컨 설치 중 20대 사망...취업 이틀만에 참변 안타까움 가족 "1시간 지나 119 신고, 응급조치도 안해"...회사대표 고소

장성의 한 학교에서 에어컨설치 작업 중 온열질환으로 숨진 20대 노동자(8월 16일자 광주일보 6면)가 취업 이틀만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A(27)씨의 유족이 회사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40분께 장성군 남면의 한 중학교에서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다 온열질환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

졌다.

유족인 삼촌은 "광주 전자공고를 졸업한 뒤 군에서 전역하고 에어컨 설치 기사로 채용된 조카가 출근 2일만에 사고를 당했다"면서 "정규직으로 채용돼 온가족이 기뻐했지만 사측은 열사병을 호소한 조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조카가 오후 4시 40분께 에어컨을 설치하다 밖으로 뛰쳐나가 구토를 하는 등 열사병 증세를 보였고 이후 감지

(之)자로 걸으며 휘청이다 잔디밭 위로 쓰러졌다"면서 "초기 대처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쓰러진 노동자를 사측 관계자들이 발견했지만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 부모에게 '데리고 가라'는 문자를 보냈다"면서 "회사 관계자들은 쓰러지고 1시간 가량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를 그늘로 옮기거나 응급조치를 하는 등 보호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족은 19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진상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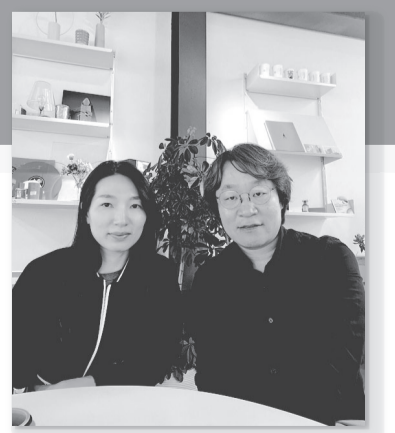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